광주 2순환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탄력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통행량 예상치 밑돌면 재협상 가능해 혈세 보전 줄어들 듯

광주시가 지난 12년간 혈세 750억원을 보전해줬던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3.53㎞) 등 국내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가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윤관석·김경수 의원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 대안 법안이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과 명절 연휴 통행료 감면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 담겼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정 변경’은 연속 3년간 실제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수치의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등이다.

민자도로는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이 있어 통행량이 적으면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자들이 통행량을 과다 추정해 도로를 만들고 이후 국가가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민자고속도로 MRG 금액은 3조2521억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2256억원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지원했다.

또 4구간(마륵동~신가동)은 광주시가 MRG 협약에 따라 지난 2007년~2010년 53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존해줬다고, 3-1구간은 지난 2004년~2016년 750억원의 비용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 줬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현저히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음으로써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됐다.

또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자사업자는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3-1구간 최대 주주인 맥쿼리 측과 MRG 폐기 등을 논의하는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결국 구속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국가균형발전·경쟁력 강화”

광주전남연구원, 정치권 ‘예산 낭비’ 주장 정면 반박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예산 낭비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17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조상필 선임연구위원과 양철수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광전리더스 INFO 제77호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당위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경부축 위주의 철도 투자정책으로 소외된 호남권에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기반시설과 통합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해 남북축 교통체계 완성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우리나라 양대 교통축인 경부·호남선의 고속철도망 완성, 무안공항 활성화 및 낙후지역인 광주·전남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당위성으로 ▲국가기반시설간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흑산도 소형공항의 모항(母港)으로서 기능 수행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확대 ▲무안공항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른 이용권역 확대(2025년 연간 272만명 이용) 등을 들었다.

또 ▲동남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제노선 개발 가능 ▲망운지역 항공특화산업단지(32만㎡) 조성을 통한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계획과 연계한 국제공항간 고속철도 연결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무안공항은 안개일수가 적고(무안 17일, 인천 47일), 유사시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급변하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허브공항(인천) 정책에서 3각축(인천-김해-무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김용희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 ‘견고하던 5·18 침묵의 카르텔…’ 선정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제327회(2017년 11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사회부 김용희(사진) 기자의 ‘견고하던 5·18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다’ 등 5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인 광주일보 보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3공수여단 소속 지휘관을 단독 인터뷰, 옛 광주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시위대 사살·암매장과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에 대해 다뤘다.

해당 지휘관은 “시위대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밝혔으며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전일빌딩 진압작전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첫 보도 이후 양심 고백을 환영한다는 성명과 후속기사가 잇따랐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암매장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해당 지휘관을 초청해 조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기념재단은 해당 지휘관이 지목한 곳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전은재기자 ej6621@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속도낸다

오늘 국회포럼…담양군 등 7개 지자체 의원 등 주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대구시는 물론 노선이 통과하게 될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7개 기초단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다.

참석자들은 달빛 내륙철도의 기능, 역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박사가 ‘달빛 내륙철도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가 ‘남부경제권, 달빛내륙철도가 시작이다’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한다. 또 계명대 김기혁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와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8명이 토론에 나선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191㎞ 길이로 5조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7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9개 지자체 실무자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내년 2~3월에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3억원을 투입해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무인텔·콘도
• 화순 도곡 온천지구, 3개동 객실 52개
• 대 2980평 건 1050평, 2013년 준공
• 요양병원 연수원 변경가, 감정 70억
• 매 55억, 교환가 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양산동 대지 900㎡ 단층건물, 사거리코너 상가건물 신축최고요지, 보9천만 월655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금곡동 충장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밭,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융자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합)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강진읍 교촌리 3,87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5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심의번호 : 21719239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